

<일본 아사히 신문> 신중화가로 경제력 불러 (06.03.23.)

<아사히신문 2006년 3월 23일자>

신중화가로 경제력 불러

중국인과 중국기업은 미국과 동남아시아에는 굳이 나서서 유치하지 않아도 밀려들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인 측으로부터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여겨졌던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중화가(차이나타운)를 만들고 중국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국의 경제 활성화에 “차이나 파워”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즈키 케이이치)

유치 “화교여 돌아와” 한국계획

고양시 일산지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버스로도 지하철로도 약 40분.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서있는 베드타운이다. 약 7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이용한 “아이 차이나타운”계획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

아이(i)는 지명의 첫 문자. 인텔리젼트나 IT의 의미도 곁들여 있다고 한다. 작년 10월에 기공식을 했고 정지작업도 완료된 단계다.

“세계 최초의 계획적인 차이나타운이다. 클린하고 모던한 거리를 만들고 싶다.” 개발추진위원회의 양필승 공동위원장(48)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등 전통적인 차이나타운과의 차이를 역설한다. “자금조달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4월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계획에 출자한 유국홍 씨(58)는 중화식재 판매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부친이 중국 산둥성에서 이주해 왔다. “새로이 찾아 올 중국인을 위한 입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화교 3 세대나 4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차이나타운은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고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다. 그러나 ‘한중문화협회’의 이영일 총재(66)는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교가 살기 어려운 나라였다.”고 회고한다. 영주권의 취득이 어렵고 토지거래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가 특히 심했던 박정희 독재정권하의 60년대, 한 때 7만 명 가깝게 있던 화교의 대다수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로 이주하여 약 2만인까지 줄었다. 한국에서 중화가라고 하면 고작 인천 시내에 소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있는 정도이다. 90년대에 들어 한중국교수립과 경제위기대책의 영향으로 겨우 규제가 철폐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새로운 차이나타운의 건설은 소위 화교 불러들이기 정책이다. 목적인 그들의 경제력에 있다.

서울에서 작년 가을 유력한 화교가 모이는 ‘세계화상대회’가 열렸다. 일본과 경쟁한 끝에 얻은 개최다. 해외로부터 약 2500인의 화교가 참가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사말을 했다.

3대째의 화교로 ‘한국중화총상회’의 추적균 부회장(87)은 “관민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 유치한 것으로 일본보다 먼저 대회를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해외화교로부터의 한국토자가 틀림없이 늘 것” 이라고 기대한다.

“기업 오라” 독일에서도 구상

독일의 고도 켈른. 관광객은 라인 강변에 서있는 대성당을 방문하고 비즈니스객의 대부분은 국가 전시회가 열리는 ‘켈른 멧세’로 향한다.

2월에 있었던 ‘국가 가전 전시회’. 점심시간이 되자 관내에 마파두부와 야채볶음 냄새가 넘친다. 중국기업의 부스에서 일제히 도시락 뚜껑이 열렸기 때문이다.

참가기업 1109사 가운데 중국본토에서 온 기업이 457사. 홍콩과 대만 기업을 포함하면 반수를 넘는다.

북경 등자에 4개소나 있는 ‘켈른 멧세 중국사무소’를 총괄하는 풍향군 씨(40)는 “멧세에 출전한 기업이 그후 켈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시의 국제경제진흥국장인 미하엘 요지보빗치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기업의 유치는 불가결하다”고 말한다.

기업유치책의 실마리로서 켈른에서도 부상하고 있는 것이 “신차이나타운 구상”이다.

멧세 회장의 인근에 중국기업과 중국인을 위한 복합시설을 만든다. 작년 여름 시의 간부와 개발업자가 중국을 방문하여 이 계획에 대한 투자와 참가를 호소했다.

디자인을 담당하는 토마스 바르텐 씨는 “뉴욕이나 방콕에 있는 전통적인 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현대적인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2008년 완성을 목표로 하나 아직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이다. 중국인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상해출신으로 컴퓨터 부품판매회사를 켈른에서 세운 오의 씨(48)는 부정적이다. “중국 기업은 같은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고 경쟁이 심하다. 중국인끼리만 모이는 것도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내몽골자치구 출신으로 작년 리튬전지 판매회사를 켈른에서 연 소론고트호르츠 바탈 씨(46)는 “독일에는 차이나타운이 없다. 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성공하리라고 본다.”

기로의 아시아 제 4 부 차이나 파워 7

테마 파크화 비판도

새로운 중화가(차이나타운)를 만들려는 구상은 치안이나 위생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적은 반면, ‘정형화’ 우선이 되기 십상으로 중국인 쪽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계획은 일본에서도 센다이 시나 삿포로 시 등에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진전되어 있는 곳이 후쿠오카 시다.

하카다 만에 떠있는 인공 섬에 중화가를 만드는 ‘21 세기 중화가 구상’은 2004 년 검토위원회가 결성되어 중국의 기업과 정부 관계자가 후쿠오카에 초대되었다.

그러나 동 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참가나 투자의사를 표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 상태로 끝날 우려도 있다.

국내의 전통적인 중화가는 나가사키와 고베, 그리고 요코하마가 유명하다. 요코하마 중화가는 규모면에서나 손님을 끌어들이는 힘에서도拔群이다. 약 240 의 음식점이 연간 2000 만 명을 넘긴다. 요코하마 중화가의 임경정 발전회협동조합이사장은 각지의 구상에 대해 “중국인이 없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도 이는 단순한 테마 파크에 지나지 않아 의미가 없다. 일본에는 출입국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 우수한 중국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중화가 건설, 제도 정비를 우선해야만 한다.”

